

# 금호타이어 작년 4분기 매출 9042억 '불황속 선전'

## 車생산 위축속 영업이익 전년비 2배 증가 중국시장 수익 회복...내수·수출 모두 성장

광주와 곡성에서 생산되는 금호타이어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판매 위축 상황에서도 매출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호타이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연결회계기준으로 9042억원, 영업이익은 730억원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8.0%를 기록했다. 전년 4

분기 영업이익 361.4억 원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한국은행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5.7%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세계경제 침체와 원화 강세 위기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타이어 업계의 내수 판매도 위축됐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타이어는 2504만 8000개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판매가 위축돼 신차 장착용(OE) 타이어 판매가 따라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과 내수 판매는 2% 이상 감소했으며 신차 장착용 타이어 판매는 826만9000개로 전년 대비 10.8% 줄었다.

반면, 타이어 업체들의 수출은 7367만2000개로 전년 대비 3.3% 증

가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수출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1년 중남미 지역에서 전년 대비 판매 실적이 33.6% 늘어나는 등 수출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실적은 아직 집계중이지만 내수 및 수출 시장 모두 소폭 성장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해외 프리미엄 OE 타이어 수출이 늘었고, 중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회복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기아자동차는 2월 한 달 동안 스포티지R과 쏘렌토R을 출고한 개인 고객의 지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주는 '스포티지·쏘렌토R 프리프로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자동차 제공)

## 기아차 R시리즈 구매하고 '사랑의 초콜릿' 선물 하세요

**'프리프로즈 이벤트' 행사**

기아자동차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쏘렌토R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지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스포티지R·쏘렌토R 프리프로즈 이벤트' 행사를 연다.

2월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이벤트는 벨란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출고 고객이 입력한 지인의 휴대폰 번호로 기아차가 모바일 초콜릿 교환권과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초콜릿 교환권과 메시지는 해당 고객의 이름으로 지인에게 전송되며 모바일 교환권을 전국 롯데슈퍼 매장에서 초콜릿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차량 등록 완료 후 13일부터 3월13일까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kia.com)에서 고객 성명과 차량 계약 번호를 입력한 뒤 초콜릿을 전달 받을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00009번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광주세무서(서장 김성원)직원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쌀을 기증하고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광주국세청·세무서 복지시설 위문·성금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창규)은 지난 1일부터 설 전일까지 서구 용두동 소재 '사랑의 집' 등 15곳의 복지시

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원생을 위로하고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도 관내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광주 및 전남·북 소재 43곳의 복지시설과 가정을 방문하고 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 광주·전남 1월 취업자 증가 실업률 0.5% 하락

1월 중 광주·전남 지역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월 광주·전남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월 취업자는 69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3만1000명(4.6%)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6.3%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

업자는 5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만8000명(3.2%)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만4000명으로 1만7000명(19.5%) 증가했다.

광주의 1월 실업자 수는 1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2000명(11.7%) 감소했고 실업률은 2.4%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성별 실업률을 보면 남자는 3.0%로 0.4%포인트 상승하고 여자는 1.7%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또 전남지역의 1월 취업자는 88만 2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2만 4000명(2.7%) 증가했고 고용률은 59.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의 1월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4000명(17.1%) 감소했고 실업률은 2.4%로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스피지수 1976.07(+30.28)	▲ 코스닥지수 507.99(+4.27)	▲ 금리(국고채 3년) 2.73% (+0.02)	▲ 원·달러 환율 1086.80원 (-4.00)
----------------------------	--------------------------	-------------------------------	-------------------------------

## 광주 올 아파트 1만2800가구 분양

### 작년 이어 분양열기 지속

올해 광주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생활정보신문인 사랑방신문(www.sarangbang.com)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17개 건설사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모두 1만2845세대로 집계됐다.

효천지구 중흥S클래스(중흥건설) 109㎡(33평), 138㎡(42평) 총 664세대가 이달 말 분양을 시작으로, 운남지구 우방아이유엘(진덕산업) 254세대도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은 79㎡(24평), 92㎡(28평), 112㎡(34평) 3가지 타입이다.

올 상반기에는 월남지구 진아리채(진아건설) 649세대와 연제동 대광로 제비암(대광건설) 375세대, 신원동 부영아파트 1772세대 등이 입주자 모

집에 나선다. 도산동에도 아이유엘(삼라건설) 60㎡(18평)와 84㎡(25평) 400세대 규모가 분양계획을 잡고 있다. 이밖에 선운지구에는 EGthe1(EG건설)이 93㎡(28평)와 110㎡(33평) 규모 503세대를 여름쯤 선보인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도 일제히 분양을 시작한다. 광주 최초의 지역주택조합인 첨단서희스타힐스가 지난달부터 808세대 분양을 시작한 데 이어 풍향동 금호산원 아파트 1600여 세대, 마북동 SK뷰(SK건설) 59㎡(18평)와 114㎡(35평) 536세대도 신규 분양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2010년 3100세대, 2011년 8000세대, 지난해 1만4500세대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 중소, 3년 경력 20대 구직자 선호

### 전국 500곳 설문조사

국내 중소기업은 공학을 전공하고 3년 이내 경력을 가진 20대 중후반의 구직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10인 이상 중소기업 500곳에 대해 '중소기업,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경력 수준은 3년 차 이내(44.8%)였다. 5년 차 이내(22.0%), 신입(8.2%), 5년차 이상(5.0%)이 그 뒤를 이었다.

선호 연령대는 20대 중후반(46.2%), 30대(40.4%), 40~50대 중장년(4.6%), 20대 초반(1.0%) 등의 순이었다. 학력 수준은 대졸(40.4%), 상관없다(24.8%), 초대졸(23.6%), 고졸(10.4%) 순이었고 전공은 공학계열(45.2%), 상관없음(41.6%), 사회계열(6.2%), 자연계열(4.4%), 인문계열(2.6%)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된다.

## 전기로 누진제 3~5단계 축소

### 요금 현실화 추진...서민·저소득층 부담 가중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임금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쳐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 2월 15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대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연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이어 함)

정축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완료!**

2차조합원 150세대 모집중!!

믿을 수 있는 시공! 현대엔지니어링(주)  
안전한 자금관리 한국자산신용(주)  
고품격 단지배치 실속형 설계  
교통, 학군 생활, 자연적인 요충지

전분주택 성황리 개관중  
총 527세대  
77㎡~123세대  
84㎡ A-154세대  
84㎡ B-250세대

모집/문의 1899-1334  
• 시행사 : 백운동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자금관리 : 한국자산신용(주) · 업무대행 : (주)오신산업개발